

# 광주 사학법인, 임직원 자녀 채용 '특혜 의혹'

광주 지역 한 사학법인의 임직원 자녀가 동일 재단 산하의 고등학교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A 사학법인 소속 B 고등학교의 일반직 채용 과정에 부정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민원에는 2025년 상반기 A 사학법인 B 고등학교의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사전 내정설이 있었으며 면접위원 선별 조건 불공정성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채용은 지난 3일까지 접수받아 1차 서류평가를 거쳐 5일 4배수로 4명의 합격자를 발표한 후 6일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9일 발표했다.

특혜 의혹은 최종 합격자가 A 사학법인의 임직원 자녀임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 국민신문고 민원...공고규정·면접위원 적법성 여부 등 제기 '사전내정설'도...법인 "결격사유 없고 지원자중 최고점 얻어"

이름을 요구한 B 고등학교 관계자는 "이번 채용 시 1차 서류전형부터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채용 전후로 법인 교직원 자녀가 응시한다는 말이 돌았기 때문"이라며 "최종 합격자보다 경력 등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가 떨어졌다는 뒷말도 무성해 인사청탁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면접위원 구성 불공정성은 2차 면접위원 3명 중 1명은 외부 위원이었지만 나머지 2명이 A 법인 관계자여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2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사학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공개전형 실시하고 채용시험 전형위원 구성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해당 법인은 최종 합격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학법인 측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의거해 면접위원 3분의 1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고, 지원자에 한해 연결고리가 있는 이들은 신고하게 돼 있다"면서 "1, 2순위의 최종 점수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만큼 직원 채용 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다이지

## "尹 내란 혐의 신속 수사해야" 광주서 시국기도

기독교장로회 광주·전남 5개 노회...양림교회-5·18광장 행진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 "5·18정신 헌법 전문수룩·탄핵 인용"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전남 5개 노회(이하 광주·전남 5개 노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광주·광주남·전남·전남서·목포노회 주최, 5개 노회 교회와 사회평화통일위원회 주관으로 광주양림교회에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찬양 ▲초대외 부름 ▲찬송 ▲기도 ▲성경봉독 ▲특송 ▲박상규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증언 ▲응답송 ▲십자가 행진 ▲성명서 낭독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인도를 맡은 전남노회 회장 김대길

목사는 "지난 14일 온 국민의 촛불이 '1·2·3 비상계엄'을 막아냈다"며 "하지만 여전히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탄핵하고 기도와 행진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어둠이 걷히도록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후 찬송과 성경봉독을 마친 180여 명의 노회 회원들은 광주양림교회에서 5·18민주광장까지 십자가 행진을 했다. 출발에 앞서 유현승 5개 노회 교회와 사회평화통일위원회 총무는 "1980년 5월 시민들이 독재에 맞서 싸워 이겨냈

듯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중이 승리를 쟁취했다"면서 "우리는 계엄 명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여기에 가담한 부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지만 오월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싸워 이겨내자"고 다짐했다.

광장에 도착한 이들은 성명서 낭독 진행 후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내란방조 국민의 힘 해체 ▲김건희 구속 및 윤석열 파면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는 광주·전남 25개 시민사회와 5·18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룩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주성학 기자

## 광주고법, 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 증액 판결

1심보다 3천만원 상당 ↑... "물가 상승 등 고려"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년 7개월간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장환 고법판사)는 1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60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는 1억2천만원 정도였다.

1980년 만19세의 나이로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

된 A씨는 계엄 포고에 따라 그 해 11월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8일간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미순화자로 분류됨에 따라 5사단으로 재배치됐고, 1982년 5월에서야 출소했다.

A씨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2018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

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행위일 이후 물가와 화폐 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억5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두환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해 7월 '사회악 일소' 등을 명분으로 군부대 순화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삼청계획 5호를 계엄 포고했다.

이에 따라 연장 없이 군과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6만여명에 달하고, 이들 중 3만여명은 분류심사를 거쳐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았다. /안재영 기자



"한빛원전 수명 연장 반대" 한빛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 광주·전남·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등 탈핵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단체교섭 결렬 GGM 노사, 1차 조정도 불발

오는 23일 2차 조정...미합의엔 파업 돌입

임금단절교섭이 결렬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1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하 지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노사 간 1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조정 전 8차례 교섭에서도 임금·복지·노조 활동 정책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노사는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오는 23일 2차 조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2차 조정회의에

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날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GGM 노사 교섭 결렬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출수 없다"며 "케스퍼 전기차 양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노사간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의 가치를 잇는 채 공멸의 길로 향하는 노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노조가 아닌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에 명기된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 수면내시경 중 의식불명 40대 숨져

광주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가 결국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한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중순께 해당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을 잃은 A(40대)씨가 그로부터 10여일 만에 사망했는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우선 해당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고,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